

# 제주 마라도의 살레덕 선착장과 마라도 성당



제주 모슬포 운진항에서 뱃길로 30분, 대한민국 최남단의 섬 마라도가 있다.

날씨가 좋아 보이는 날에도 바다가 허락하지 않으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섬이다. 마라도에는 현무암의 기암절벽이 장관인 살레덕 선착장과 전복의 모습을 한 작은 성당이 있다.

마라도의 살레덕 선착장에 도착하면 화산석 기암 절벽위의 산책길에 올라서게 된다. 해안선을 따라 신선바위, 뽕뽕옹 절벽 등 현무암의 기암절벽이 장관이다. 선착장부터 팔각정까지의 산책길은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시원함을 더한다. 난간을 따라 해안 산책로를 반시간 정도 천천히 걸으면 대한민국의 제일 남쪽 끝자락 표시인 최남단 기념비를 만나게 된다. 여유 있는 걸음으로 1-2시간이면 한바퀴 돌 수 있는 마라도에는 110 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바닷

길을 밝혀주는 등대, 그리고 관광객을 위한 자장면집이 몇 군데 있다. 늘 세차게 불어대는 바닷 바람으로 풀과 나무가 낮게 옆드려 있지만 들꽃은 여전히 피어 있다. 최남단 기념비를 뒤로하고 아트막한 비탈길을 올라 서자 ‘쁘르찌운쿨라’라는 아주 작은 성당이 나타나는데 종탑과 지붕이 전복과 소리를 형상화하여 모습이 매우 이채롭다.



Canon-5DSR 24/70mm 1/250, f8, 2017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뿌르찌운쿨라성당.

이 성당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다섯상처, 오상의 빛이 5개의 유리천정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지어져 성당 안은 밝고 아늑했다. 1999년 고 민성기요셉신부 (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 에 의해 건립 추진 되었으며 부산교구 성전 건립모금을 통해 2000년 성전이 축성 되었다.

프란치스코 영성의 출발점인 포르치운쿨라의 이름을 빌려온 마라도 뿌르찌운쿨라 성당은 2006년 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제주교구로 기증되었고 현재 모슬포 경당으로 관리되고 있다. 깨끗한 마루 바닥에 제대와 몇 개의 방석이 정갈하게 놓여있어 기도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미사 봉헌은 없지만 여객선이 들어올 때만 열어놓는다는 마라도성당에서 짧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가슴에 담고 일어선다. 갈대와 바람, 바다를 배경으로 전복모양의 지붕과 천정빛이 내려 앉은 사랑방 같은 교회가 정겹다.

사진과글 변태음 요셉

연중 제 3 주일  
설 미사  
2023년  
01월 22일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 이용범 사도요한 신부님을 환영합니다.

###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만수기 6,22-27
- # 화답송 시편 90(89),2와 4.5-6.12-13.14와 16(© 17~)
-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 제 2독서 야고보서 4,13-15
- # 복음 환호송 시편 145(144),2 참조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 복음 루카 12,35-40
-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 # 성가 입당 66      봉헌 213      성체 497      파견 77

## 성당 소식

### ✿ 미사지향 (연미사)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씬머셋 구역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영섭 - 이윤경(비르짓다)

### ✿ 미사지향 (생미사)

- 이용범(사도요한) 신부님 - 사목회
- 염은미(클라라) - 가족, 백상현(요셉) 가정
- 김종숙(마리아) - 민 엘리자벳
- 오경선(원선시오) - 박재영(요아킴), 채희백(바오로), 채미영(테레사)
- 하준석(마태오) - 박재영(요아킴)
- 송아름(클레어) - 이서형(요안나)
- 뚝거스 구역 가정 - 임혜인(로사)
- 일치의 모후 Pr. - 임혜인(로사)
- 임혜인(로사) - 뚝거스 구역, 이서형(요안나)

###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43명).....	\$1,458	
• 교무금.....	\$2,370	
최영옥(1)	서영원(1-2)	백상현(2)
오경선(1-2)	오용운(1)	곽신규(1-2)
이광호(1-2)	허기욱(1-6)	김영필(1-2)
김삼식(1-2)		

###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박화성(헬레나)	곽 율리안나



✿ 오늘 미사는 새로 부임하시는 이용범 사도요한 신부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는 환영 미사입니다. 미사 중 환영식이 있으며, 미사 후 친교실에서 환영파티가 있을 예정이니 많이 참석하시어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차 헌금

- 1월 22일: Foundation for Catholic Education Collection (메타천 교구내 초등학교~고등학교 학비 지원)
- 2월 5일: The Catholic Spirit (교구내 가톨릭 신문사 지원)

### ✿ 성물방 판매 총결산(2020년-2022년)

- 총 판매금액 \$1,380
- 20% 수익금 \$276

✿ 2023년 1월 매일 미사책을 신청하신 분은 성당 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 요셉회 모임

- 일시 및 장소: 1월 22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 노스브런스워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1월 22일(부일) 미사 후 친교실

### ✿ 올드브릿지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2월 5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 유스그룹 커피 쿠폰 판매

- 유스그룹 학생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 캡슐커피 스테이션을 친교실에서 운영 중이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 ✿ 바오로딸 성경 학교 학생모집

-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 영성 중 선택
-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 원서접수: 바오로딸 성경학교 홈페이지 (<https://uus.pauline.or.kr/>)
- 마감: 2023년1월 31일
- 문의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Scan Me!

## 말씀번역

### ✿ 제 1독서 민수기6,22-27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 제 2독서 야고보서4,13-15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어느 고을에 가서 일 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 루카 12,35-4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새해엔 이런 사람이

이해인 / 수녀, 시인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써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등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에 새해라는 또 하나의 문을 열어 주신 주님,  
이 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로 보며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 묵상도움글

말씀 안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눕니다.

1. 어떤 마음으로 성체를 바라보고 받아 모시고 있습니까?
2. 하느님 나라의 구경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루카 12, 36)